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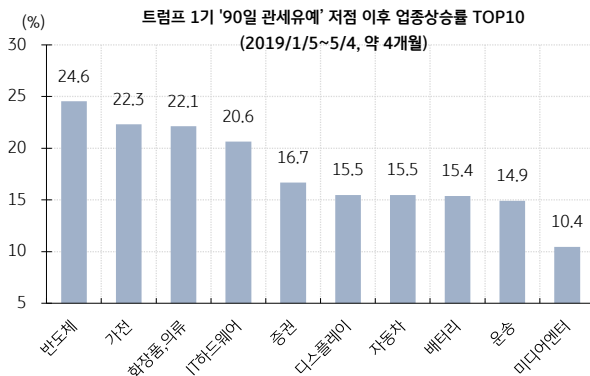
관세 리스크 완화: 트럼프 1기 때는 90일 유예 이후 어떤 업종이 강했나?

트럼프 1기 당시엔 ‘수출주’가 강세, ‘B2C소비’도 양호한 수익률

‘90일 관세유예’ 이후 좋은 합의 소식들이 이어지는 것은, 트럼프 1기 때의 패턴과 같다. 그렇다면 당시엔 어떤 업종이 강했을까? 주로 ‘반도체/가전/IT하드웨어/자동차’ 등 “수출주”가 좋았다. 아울러 ‘화장품, 증권, 미디어엔터’ 같은 “B2C 소비주”도 괜찮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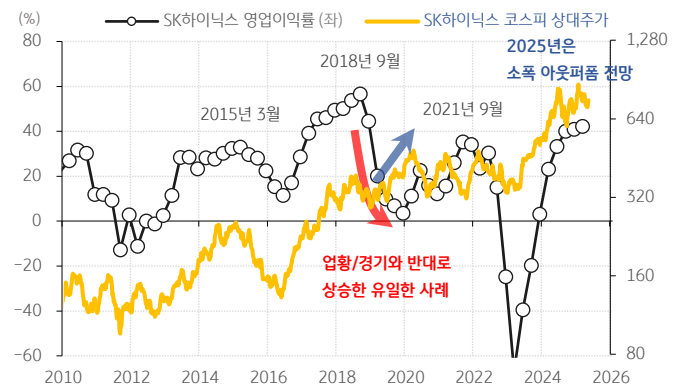
당시 반도체의 아웃퍼폼은 매우 묘하다. 기업실적/DRAM가격/매크로지표 등 대부분 지표는 매우 안 좋았기 때문이다. 결국 상승의 상당 부분은 반도체에 관세 부과 우려가 해소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기타로 데이터센터 수요 기대감, 재고 감소 등도 상승 요인이라고 한다.

트럼프 1기 90일 유예: 수출주 강세, 그 다음은 B2C소비주



자료: Quantwise, KB증권

2019년 반도체 아웃퍼폼은 업황과 상관 없이 나타난 현상



자료: Quantwise, KB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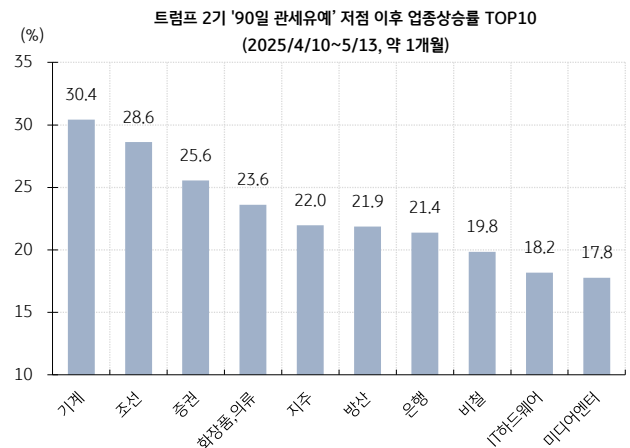
이번엔 ‘방산·조선/B2C소비주’ 강세, 수출주 중엔 반도체

이번엔 1기와 비슷한 점은 ① B2C소비 아웃퍼폼 (증권/화장품/은행/엔터/건설/유통 등), ② 운송 강세 정도이다.

반면 1기와 다른 점은 ‘수출주’이다. 반도체/IT부품장비 (이수페타/고영 등)는 그나마 최근 반등하고 있지만, 자동차/가전 등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따라붙지 못하고 있다.

① 반도체는 ‘소폭 아웃퍼폼’ 전망을 유지한다. 1기 때만큼 강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트럼프 정책이 꼽힌다. 트럼프는 ‘US Investment Accelerator’의 설립 행정명령에 사인했는데 (4월 1일), 이 부서는 CHIPS법 재협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5월 말로 예정된 ‘예산 감축안’엔 아직 ‘IRA 감축’만 확인된다. ② 자동차는 재고가 소진되는 6월부터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번 90일 유예: 방산/조선 강세, 그 다음은 B2C소비주



자료: Quantwise, KB증권

- 2019년, '90일 유예' 이후 가장 강했던 것은 '수출주 (반도체/가전+자동차)', 그 다음은 'B2C소비주'였다
- 이번엔 '방산/조선'이 강했고, 그 다음은 'B2C소비주 (증권/화장품/엔터/건설/유통)'가 강세를 보였다
- 수출주 중에선 반도체가 자동차/가전보다 나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된 매크로 요인 몇 가지를 적었다

투자자 고지사항

- KB증권은 동 조사분석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와 그 배우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 작성자는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이 보고서는 고객들에게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계약의 청약 또는 청약의 유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KB증권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일 시점의 전문적인 판단을 반영한 의견이나 KB증권이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투자는 고객의 판단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 보고서는 여하한 형태로도 고객의 투자판단 및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의 저작권은 KB증권에 있으므로 KB증권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학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학술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KB증권에 사전 통보하여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